

한일 무역갈등 불똥 튕까... 게임업계 '전전긍긍'

‘무풍지대’ 낙관론 속 부정적 우려도
출시작 선전... 신작도 차질없이 진행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게임 업계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관호(유통허가권) 발급 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국내 게임 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막힌 상황에서 일본 시장이 하나의 대안이 돼 왔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상 마니아층이 많아 경제 보복 ‘무풍지대’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한일 관계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면 게임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오는 18일 일본 개발사의 신작 모바일 게임 ‘시노앨리스’를 출시한다. 시노앨리스는 일본 개발사 스퀘어에닉스와 포케라보가 개발했으며, 다양한 동화 속 주인공 이야기를 요코오 타로 디렉터의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다크 판타지 역할 수행게임(RPG)이다. 앞서 일본에 출시된 시노앨리스는 일본 애플 앱스토어



넥슨 모바일 신작 ‘시노앨리스’ 메인 이미지. /넥슨

최고 매출 1위를 석권했다.

문제는 일본 무역 보복에 의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변수다. 실제 이번 일본 경제 보복으로 반일·반한 감정이 악화되며 다양한 소비재 부문에서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국내 게임들도 불매 운동 대상이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문화 콘텐츠 사업 특성상 일반 소비자보다는 게임 자체의 특성을 즐기는 마니아층이 많아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일본 시장에 진출한 국내 게임들의 실적은 견고한 모양새다. 이날 기준, 출시 한 달 여 기간이 지난 넷마블의 역할수행게임(RPG)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는 앱스토어 매출 순위 6위, 구글플레이 19위를 기록해 여전히 순위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 달 4일 넷마블이 출시한 이 게임은 출시 10일 만에 일본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오른 바 있다. 한국과 일본 동시 론칭한 국산 게임이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게임은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대표 이미지. /넷마블

원작자 스즈키 나카바의 만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 IP를 활용한 모바일 RPG다.

같은 날 기준 퍼블리시의 ‘검은사막’ 역시 구글플레이 14위, 앱스토어 21위를 기록했으며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구글플레이 32위, 앱스토어 35위를 차지했다.

게임사들은 하반기 일본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신작에도 차질 없이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타자로 넷마블은 오는 30일 일본 시장 출시를 예고한 모바일 캐주얼 RPG ‘요괴워치: 메달워

즈’ 준비에 한창이다. 일본의 대중적 IP를 활용한 이 게임은 하반기 일본 시장 최대 기대작으로 꼽힌다. 넥슨도 ‘리비전즈: 넥스트 스테이지’와 퍼즐 액션 게임 ‘아크 레조나’ 등을 올 하반기 일본 시장에 출시한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을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한일 관계 악화가) 게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악영향을 끼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유럽 부동산 품는 국내 증권사들... 왜?

안정적 수익 기대... 투자가치 있어
대도시 오피스 빌딩·호텔 등 매입

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내 부동산 투자가 마땅치 않자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해외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증권사는 유럽 대도시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호텔 등을 매입하면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을 늘리는 중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과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힐튼호텔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3억7500만달러(약4400억원)로 증권3사가 약20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

물이 지난해 말 힐튼호텔과 20년 장기 계약 체결했다”며 “국내 증권사로서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힐튼호텔이 10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감안, 향후 30년간 영입이 가능한 셈이다.

호텔 외에도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유럽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월 총 3700억원을 들여 프랑스 파리 인근의 상업지구인 라데팡스 지역에 위치한 빌딩을 인수했다. 이어 4월에는 2000억원 규모의 벨기에 브뤼셀 투와송드르 빌딩을 샀다. 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0월 독일 쾰른에 위치한 건물의 지분을 1500억원어치를 매입했고 올해 프랑스 파리 마중가타위를 1조83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최근 삼성증권도 프랑스 파리의 크리스탈파크 오피스 빌딩에 9200억원을 투자해 눈길을 끌었다.

증권사가 유럽 부동산을 늘리는 이유

는 불안정한 증시 변동성에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는데다 유럽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중수익이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유럽 외에도 해외 부동산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 ‘웨스트할리우드에디션 호텔 앤 레지던스’에 선순위, 중순위 대출을 하기도 했다. 투자는 호텔과 콘도가 나눠져 진행됐는데 총 1억8200만달러로 한화로 약 2200억원에 달한다. 기대 수익률은 연 5~6%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하나금융투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에 11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증권사들의 유럽 부동산 쇼핑에 적극 나서면서 이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도 사상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설정된 해외 부동산 펀드 및 투자일임 계약은 공모, 사모 총합 6조9526억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독일 프라임 오피스빌딩 ‘Taurusanlage 8’ 매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다. 해외 부동산 펀드 또한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완판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마크 캘린더 슈로더투신운용 리서치 총괄은 지난달 12일 열린 유럽 부동산 전망 세미나에서 “파리,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도시 지역에서 공실률이 과거 15년 대비 역사적 저점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유럽 부동산은 충분히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입주물량 늘어 주담대 ↑ 올해 들어 최대치 기록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3조9000억원 늘면서 지난 5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신규아파트 입주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9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26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전월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2월(4조9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6월 기준으로는 2017년(4조3000억원) 이후 최대다.

주택 입주물량이 누적이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9000호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입주 관련 수요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에서 나오는 대출 수요가 커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848조9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다만 6월 기준으로는 2015~2018년 평균 증가액인 6조5000억원보다 줄었다. 통상적으로 5월 경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2조1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 컸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한 85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6조원)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됐다. /홍민영 기자 hong93@

금융위, 전남권 벤처투자펀드 200억 조성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적극 지원

벤처기업 투자 펀드인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가 전남권에서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역에도 혁신성장 금융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장은 11일 전남

대 여수캠퍼스에서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금융생태계 조성방안은 ▲창업단계 ▲성장단계 ▲회수·재도전 단계로 나뉜다. 금융위는 우선 창업단계인 기업을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보육인프라를 마련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창업보육인프라를 위해 ‘FRONT1’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5년간 19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장단계에 들어선 기업은 성장자금 지원과 동산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3년간 8조원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재고자산·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제도를 정비한다.

회수·재도전하는 기업에는 바이오·4차 산업혁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요건을 마련하고 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재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날 콘서트에는 전남지역 창업 유관 기관과 창업희망 청년 등이 참여해 지역의 혁신창업 확산 필요성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패널 발표자들은 “지역에서의 원활한 창업과 성장을 위해 지역에도 창업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갖춰지고 성장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 중심 혁신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